

친절질서 청결운동 캠페인 실시

바살協 소홀음 민속장터 질서지킴이 운동



바르게살기 포천시협의회는 지난 24일 소홀음 송우리 민속장터에서 '친절질서 청결운동 생활화로 선진 문화시민이 됩시다'라는 전단지 2천매와 티슈 2천장을 시민들에게 배포했다.

바르게살기 포천시협의회는 지난 24일 소홀음 송우리 민속장터에서 '친절질서 청결운동 생활화로 선진 문화시민이 됩시다'라는 전단지 2천매와 티슈 2천장을 시민들에게 배포했다. 이번 청결운동 캠페인은 세계속의 경기도 구현과 바르게살기운동 전국화원대회 10월9일 수원시에서 성공리에 개최되고 포천지역을 4개 권역(포천, 영북, 일동, 소홀음)으

로 나눠 질서지킴이 운동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번 소홀음 민속장터 캠페인에는 바르게살기운동 포천시협의회 회원 50여명이 참여했다. 한편 지정육 여성회장은 "기초질서지킴이 운동은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모든 시민이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하승남 기자 forme65@paran.com

성매매 성폭력 巡廻 예방교육

학생과 학부모 군장병 대상 11월까지

포천시에서는 초·중·고 학생 및 학부모, 군인장병들이 올바른 성 윤리관 및 가치관을 정립하는데 기여하고자 순회 성매매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4월부터 실행한 2007 성매매 및 성폭력 예방교육은 11월까지 실시할 계획이며, 4월부터 8월까지 관내 초·중·고 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4005명, 군인 장병·장교



포천시에서는 초·중·고 학생 및 학부모, 군인장병들이 올바른 성 윤리관 및 가치관을 정립하는데 기여하고자 순회 성매매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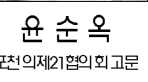
에세이

만감이 교차되는 세월 속에

옛날 대가집에선 예비머리의 흑독한 시냇물이 있었다고 한다. 시냇물은 시어머니이다. 살얼음 같은 냉혹한 질문에 막힌 없이 답을 못하고 수차례 어려운 질문에 통과하면 그때서야 머니 감으로 인정을 받고 그렇지 못하면 거기에 따른 부당한 대우로 수치심을 느끼게 했다고 한다. 연일 내리는 비로 배란기의 된장항아리 주변에 뿌연 곰팡이가 점점 겹겹이 번지고 있다. 마른 휴지로 닦아 봐도 그 순간뿐이다. 구석이 내일 모래인 우리 어머니가 이제 그런 곳에 눈여겨보실 안목을 접으실 것 같다. 새댁시절 험사리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사소한 일에 꼬투리를 잡으며 꾸지람을 주시던 서울 퍼런 눈빛이라곤 찾아 볼 수 없으니... 그저 조용하게 늙어 가시는 그 모습이 머지 않은 날의 내 모습 같다.

만감이 교차되는 세월 속에... 옛날 대가집에선 예비머리의 흑독한 시냇물이 있었다고 한다. 시냇물은 시어머니이다. 살얼음 같은 냉혹한 질문에 막힌 없이 답을 못하고 수차례 어려운 질문에 통과하면 그때서야 머니 감으로 인정을 받고 그렇지 못하면 거기에 따른 부당한 대우로 수치심을 느끼게 했다고 한다. 연일 내리는 비로 배란기의 된장항아리 주변에 뿌연 곰팡이가 점점 겹겹이 번지고 있다. 마른 휴지로 닦아 봐도 그 순간뿐이다. 구석이 내일 모래인 우리 어머니가 이제 그런 곳에 눈여겨보실 안목을 접으실 것 같다. 새댁시절 험사리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사소한 일에 꼬투리를 잡으며 꾸지람을 주시던 서울 퍼런 눈빛이라곤 찾아 볼 수 없으니... 그저 조용하게 늙어 가시는 그 모습이 머지 않은 날의 내 모습 같다.

만감이 교차되는 세월 속에... 옛날 대가집에선 예비머리의 흑독한 시냇물이 있었다고 한다. 시냇물은 시어머니이다. 살얼음 같은 냉혹한 질문에 막힌 없이 답을 못하고 수차례 어려운 질문에 통과하면 그때서야 머니 감으로 인정을 받고 그렇지 못하면 거기에 따른 부당한 대우로 수치심을 느끼게 했다고 한다. 연일 내리는 비로 배란기의 된장항아리 주변에 뿌연 곰팡이가 점점 겹겹이 번지고 있다. 마른 휴지로 닦아 봐도 그 순간뿐이다. 구석이 내일 모래인 우리 어머니가 이제 그런 곳에 눈여겨보실 안목을 접으실 것 같다. 새댁시절 험사리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사소한 일에 꼬투리를 잡으며 꾸지람을 주시던 서울 퍼런 눈빛이라곤 찾아 볼 수 없으니... 그저 조용하게 늙어 가시는 그 모습이 머지 않은 날의 내 모습 같다.



윤순옥 포천시(제2)영인회교

故 김진동 포천예총 회장 유고집 발간

유작전 포천반월아트홀에서 9월8일~12일



故김진동 포천예총 회장 유고집 '삶이 뭐 별거였오'가 발간돼 오는 9월8일 오후3시 포천반월아트홀 전시장에서 유고집 발간 기념

식과 유작전 전시회를 개최한다. '외길·조율인 김진동의 삶'이라고 부제를 붙인 유고집은 369페이지로 구성했으며 유작화보, 책머리에(미망인), 주신글, 남긴 글, 외길을 보내고, 남긴 흔적 등으로 편집했다. 책머리에를 통해 미망인 박영자 여사는 "생전에 준비하다 마

무리 못하신 전시회와 문집을 매듭지어 펴주고 싶어하셨던 의도와는 다소 차이가 있었지만 그나마 주변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이렇게 자그마한 회고전과 유고집을 마련하여 영전에 바친다"고 밝혔다. 고 김진동 포천예총 회장은 1937년에 안동에서 태어나 2006

년 포천에서 작고했으며 생전에 낚시연구가, 서예가, 수채화가로 활동했으며 유고집은 경기문화재단과 포천시, 대원문화사 후원으로 발간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유작전은 9월8일부터 12일까지 포천반월아트홀 1층 전시장에서 개최된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인터뷰

이동면의용소방대 대장 박만수

"산화감시의 의용소방대원들에게 맡겨 주세요"

대원들 산악구조 전문가 수준 장비 보완 필요

"이동면 지역의 특성상 산악구조가 많아 대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다. 그러나 사고가 발생하면 출동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각종 장비가 개발되고 있지만 아직도 부족한 장비가 많아 구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동면의용소방대 박만수(50·사진) 대장은 올해로 만 3년 동안 대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올 여름철에서 노코학전에서 익사사고가 발생해 구조에 나섰으나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고 한다. 이동면 지역에는 산이 많다. 가리산, 곡방봉 등 험한 산이 있다. 등산객들이 아무 준비 없이 오르다가는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 골절, 탈진, 등산로 이탈 등 구조에 나설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이다. 이처럼 등산객들이 위험에 처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산에 등산로가 개발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며 이처럼 개발되지 않은 산을 등산하면서 등산객들이 반반의 준비를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2001년도에 4명이 사망했을 당시를 되돌아보면 겨울에는 능선이 어렵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바람이 불어 능선위로 올리기 때문이다. 당시에 대원들이 고생을 많이 했다. 이때 당시에 유가족들이 와서 대가할 곳이 없어 사무실 마

련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조성됐고 그 이후 사무실을 포천시와 이동면에서 지원해 마련했다. 그 이후로 대원들이 매일 같이 5~6명씩 교대로 근무하며 비상대기하고 있다. 사무실 운영비만 100만원이 넘어서고 있다. 박 대장은 그동안 산화감시를 의용소방대에 맡기던 것을 다른 단체에도 산화감시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의용소방대 고위업무므로 지속적으로 맡겨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또 들것과 랜턴 등이 부족해 구조에 나설 때마다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들것의 경우 고가장비로 최상품은 700만원이 넘어서는 것도 있다. 그래서 업무가 나지 않는다. 그러나 구조에는 매우 요긴하게 사용될 수 있다고 강조한다. 또 무전기도 필수적인 장비로 포천시가 7대를 지원해 산악구조에 적절하게 이용하고 있다. 산악지대는 핸드폰 배터리로 쉽게 방전되기 때문에 무전기는 필수다. 이동면의용소방대는 이동면 전 지역에 5~7분이면 도착할 수 있는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산악사고의 경우 전화하면 40분안에 헬기 출동할 수 있다. 그러나 대원들은 걸어서 사고현장까지 올라가야 한다. 박 대장은 겨울철 산행시 조난



을 당했을 때는 큰 바위 밑이나 뒤쪽으로 가서 모닥불을 피워놓고 구조의 손기를 기다리면 곧바로 구조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 가을철에는 위에는 녹아있지만 아래쪽에는 얼어붙어 발목이 부러지는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부상을 입었을 경우에는 능선에 올라가서 나뭇가지를 깎아서 불이라도 피우고 있으면 빨리 발견하여 구조될 수 있다고 한다. 또 산바다 좌표가 있다. 좌표를 참고로 해서 방향을 파악해야 한다. 또한 박 대장은 이동면 지역의 산에 등산을 할 경우에는 미리 이동면의용소방대 사무실에서 안전사고 예방대책을 사전에 알아본 다음에 산행을 하기를 바란다. 또 이동면의용소방대는 동네 경로당까지 마련해 경로친선상을 운영하고 동장군속제나 숲속제 등 관내 행사에는 산주하면서 안전사고 등의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박 대장은 앞으로도 여러 가지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주민들과 더불어 살아가고 싶은 소박한 마음으로 맡은 바 임무에 충실하겠다고 밝혔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장승호의 야구 이야기 19

제6회 경기도지사기야구대회 준비



장승호 포천야구협회 회장

제6회 경기도지사기야구대회가 9월1일, 2일 구리시에서 개최됩니다. 경기도내의 많은 시·군을 대표하는 선수들이 한자리에 모여 야구라는 이름 속에 친목과 화합의 마당에서 서로의 실력을 뽐내고 겨루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우리 포천을 대표하는 야구대표팀 선수들도 그동안 준비한 실력을 보여줄 것이고 또한 축제의 마당에 직접 참여하고자 열심히 연습하고 많은 준비를 하였습니다. 언제나 타 대회를 참석하면서 느끼지만 전용야구장이 없는 열악한 환경을 극복하고 열심히 연습에 참여하여 주고 성실히 야구

협회에 동참하여 준 동우인들과 야구단들에게 항상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번 구리에서 펼쳐지는 경기도지사기야구대회에 참가하는 포천시 야구대표팀의 각오는 그 어느 해 보다 남다르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대회를 여러 차례 참가하였지만 아쉬운 경기를 매년 경험한 우리들로서는 2007년 4강을 목표로 새로운 도전장을 던지려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전역에서 모인 많은 훌륭한 선수와 팀을 상대로 멋진 즐거운 경기를 통하여 포천의 명예와 이름을 널리 알릴 수 있는 마당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

기도 합니다. 우리 포천은 야구뿐 만 아니라 많은 비인기 종목들이 열악한 가운데서도 열심히 포천의 체육발전을 위하여 노력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바 위치와 자리에서 열심히 봉사해 주시는 시민들과 많은 선수들 덕분에 경기도 대회를 비롯한 여러 대회에서 우리 포천이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여야 할 많은 일들이 더욱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비인기 종목의 설움과 열악한 환경을 하루 빨리 개선하여 주어야 한다는 것과 적극적인 지원을 통하여 생활체육의 발전이

시민들에게 활력으로 되돌려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활체육의 활성화가 시민들에게 주는 경제적인 파급효과와 돈으로 계산하기 어려운 정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건강을 지키는 것이 마지막 희망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포천의 시민들이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게 이 시대를 살아 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지혜와 슬기를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탐방 야생목장



착유소 12마리 스스로 목장 경영에 나서

섬세한 사양관리가 1등급 원유를 생산하는 비결

여름철이면 일본뇌염과 말라리아모기가 발생하게 되므로 가축전염병에 대한 축산농가의 주의가 요구된다. 아카비네병 소유행열 아비라기 등 가축질병으로 가축관련 시설들을 정기적으로 소독하고 특히 축사주의 물용병에 고인물이 없도록 하며 축사주와 운동장 바닥의 분뇨는 수시로 치워 예방에 힘써야 할 시점이다. 가시면 마산리에 위치한 자영목장(대표 권영철 윤성희)은 아이들과 운동장 우분을 트랙터에 실어 저장고에 운반하는 작업이 한창이다. 권영철 대표는 1984년 이천농과 자영농과 2호로 졸업하여 토끼농장과 돼지농장에서 일하다 새암농장에 취직하여 젓소 5마리를 구입하였다. 부모님 집에 목장을 짓고 아버지와 함께 관리하며 직장생활 4년 뒤 소들이 새끼를 낳으면서 가시면 마산리 1000평 규모에 착유소 12마리로 자기 스스로 영농을 한다하여 '자영목장'이라 이름을 짓고 목장을 시작했다. 1993년 윤성희 가시면 지부장과 결혼을 하여 1남2녀를 두었으며, 애경사와 몸이 아를 때에도 아침 저녁 착유를 하는 것이 부담스럽게 느껴져서 헬퍼(목장일을 해주는 사람) 사들이 더욱 활성화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한다.

가시면도 점차 도시화되어 목장주변 공장들로 인해 2004년5월 지금의 목장부지1500평에 건물 400평을 짓고 이전하여 착유소 30두, 후보소 34두 총64두며 서울우유 납유 쿠퍼량은 800다. 사료는 서울우유 주문사료와 화의양TMR 배합사료를 먹이며 건조료는 버뮤다와 톨페스류집을 급여하고 있다. 수정은 시정(수컷을 수정시키지 못하도록 시술하여 만든 소)로 발생 온 소를 자가 인공 수정 시키며 정해진 시간에 착유하고 개별 착유로 과도한 착유는 하지 않으며 섬세한 사양관리가 1등급 원유를 생산하는 비결이라고 귀뜸했다. 이면이 주부영(가시면 이사)은 비결이라고 귀뜸했다.

목장을 운영하면서 어려운 점은 우분처리라고 한다. 포천시 350 축산농가가 노력해보지만 대부분이라고 생각한다. 포천시에서 우분을 공동수거하여 비료 생산 공장을 특성화 사업으로 지원하길 바란다. 윤성희 가시면 지부장은 취미로 수영을 하지만 앞으로는 인근에 위치한 승마장에서 부부가 함께 승마를 배우고 싶다고 하며 젓소개량을 통해 목장경쟁력을 높여 앞으로 '자영목장'은 유량을 1톤 500에서 2톤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오늘도 땀 흘리며 열심히 일하는 모습에서 자영목장은 밝은 희망이 보인다. 이면이 주부영(가시면 이사)은 비결이라고 귀뜸했다. ddms8523@hanmail.net



자영목장 권영철, 윤성희 부부의 자녀들

월빙

부사의(不思意)

권력(權力)과 권세(權勢) 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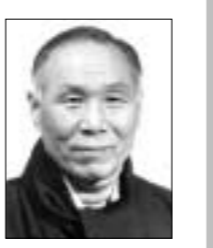
'권력(權力)'이란 무엇인가? 권력이란 '남을 지배하여 강제로 복종시키는 힘'을 말하는 것이다. 남을 지배하고 강제로 복종시킬 수 있다는 마력(魔力) 때문에 사람들은 너도나도 권력 잡기에 열심이다. 목전의 이익(利益)만을 생각하기 때문이다. 당장의 영화(榮華)만을 생각하기 때문이다. 권력에는 책무(責務)가 뒤따른다는 사실을 망각(忘却)하기 때문이다. '화무십일홍(花無十日紅)'이요, '권불십년(權不十年)'이란 말이 있다. 꽃은 십일을 넘기지 못하고 권세는 십 년을 넘기지 못한다는 말이다. '권세(權勢)'란 권력을 등에 업고 세도(勢道)를 부리는 것이다. 세도란 자기의 높은 신분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권력(權力)을 휘두르는 것을 말한다. 권세란 이처럼 허망(虛妄)한 것

권력 '남을 지배하여 강제로 복종시키는 힘'

이다. 그들의 생각처럼 영원(永遠)히 이어지는 것이 아니다. 때가 되면 꽃이 시드는 것처럼 때가 되면 권세도 기우는 법이다. 그래서 흥망성쇠(興亡盛衰)를 말하는 것이다. 고대로부터 권(權)은 저울추를 가리켰다. 저울추에 따라 그 가치(價値)를 가름했던 것이다. 저울막대 위에 추(錘)를 움직여 잴 물건은 '무게'가 곧 그 물건의 '가치'가 된다는 말이다. 물건뿐 아니라 사람의 '무게'도 달았다. 다만 사람은 몸무게가 가차일 수 없기에 그 사람의 능력과 영향력을 분량(分量)으로 추상(抽象)해 그 무게를 재어냈다. 이처럼 분량의 숫자로서 사람의 깊어지를 드러내고자 하는 생각은 조선시대의 과거시험(科擧試驗)에도 이어졌다. 시험 성적을 분(分)으로 매겨 최종 점수를 분수(分數)로 나타냈던 것이다. '분수를 인다'는 말은 여기서 나온 것이다. 분수를 인다는 것은 자신의 능력에 대한 '객관적(客觀的)인 평가를 자각(自覺)'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저울추에는 물건(物件)과 인간(人間)의 가치를 결정하는 '힘'이 있다. 이 '저울추의 힘'이 바로 권력(權力)을 낳는 것이다.

추가 권(權)이라면 저울막대는 형(衡)이다. 저울대를 가리켜 도량형(度量衡)이라 일컫는 이유이다. 물건의 무게는 추를 움직여 저울막대가 수평을 이룰 때 결정된다. 권과 형의 균형점인 권형(權衡)이 판단의 기준(基準)이나 표준(標準)이 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권력은 물건의 가치(價値)를 재고 인간의 능력(能力)을 평가하는 힘에 머물지 않고 판단 기준과 일관적 표준 정서를 부여하는 힘이 되었다. 저울막대의 수평(水準)이라는 결과적 균형(均衡)이 권력의 원천(源泉)이었던 것이다. 서구(西歐)의 권력 개념은 이와 다르다. 그들은 대체로 권력을 재화(財貨)나 명예(名譽) 같은 사회적 분배체계의 정당성(正當性)에서 오는 것으로 생각했다. 그 같은 정당성을 근거로 사회적 입력과 물리적 강제수단을 통해 분배체계(分佈體系)를 결정하고 이를 유지변경(維持變更)하는 '힘의 행사'를 권력으로 본 것이다. 권력은 신(神)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므로 처음부터 정당하다고 생각했다. 그것이 인간(人間)에게 옮겨진 후에는 신의 뜻을 가름할 일반의사(一般意思)에 근거해 정당성을 띠었다고 생각했

다. 이것이 권력에 대한 그들의 생각이다. 동양의 생각은 그게 아니었다. 도량형(度量衡)이 그 기준이었던 것이다. 도량(度量)이 넘다는 말은 그래서 소중(重)한 것이다. 권력을 향해 뛰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바빠지고 있다. 저마다 내세우는 비전(vision)은 다르지만 권력을 향한 그들의 의지(意志)는 다를 바 없다. 그들이 어떤 권력에 의욕을 쏟든 옛 사람들의 말을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 옛 사람들은 지배자를 4등급으로 나누어 설명했다. 첫째는 국민이 '그 존재조차 모를 정도인' 최상급 지도자이고 둘째는 국민이 '친근감을 느끼고 자랑스러워 할 수 있는' 덕망의 지도자이며 셋째는 국민이 '두려워하는' 지도자요, 넷째는 국민이 '모멸하는' 지도자다. 이 가운데 어떠한 지도자(指導者)를 선택할 것인가? 심사숙고(深思熟考)해야 한다. 그들이 권세(權勢)를 휘두르고 권력(權力)을 행사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규임 한국방송작가협회 회장